

# AI 활용 상시 모니터링…5·18 왜곡 뿌리 뽑는다

광주시, 대응체계 전면 개편…왜곡 도서 열람 제한도 왜곡 적발→법적 조치→교육·홍보로 선순환 대응 구축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편웨와 왜곡을 뿌리 뽑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왜곡 서적에 대한 도서관 열람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차단막을 구축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지능화되는 왜곡 수법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5·18 역사왜곡대응 TF 3대 분야 10대 과제 수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 모니터링 방식을 넘어, 왜곡 사례 적발 후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다시 교육과 홍보로 연결하는 선순환 대응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응 체계는 크게 '디지털·미디어 대응', '법률·제도 대응', '교육·연구·홍보' 등 3대 분야로 재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대응 분야다.

기준에는 인력이 일일이 인터넷상의 기자뉴스

를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된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 5·18을 왜곡하는 콘텐츠가 게시되는 즉시 이를 감지해 삭제 요청이나 신고 조치로 이어지도록 속도전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오프라인상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감시도 한 층 강화된다.

시는 시중에 유통되는 출판물 중 5·18 역사를 부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내용을 담은 '왜곡 도서'에 대한 전수 조사에着手한다.

특히 공공도서관 등에서 이러한 서적이 무분별하게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금지나 분리 보관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기자뉴스 신고센터'는 '5·18 왜곡 제보 접수대응' 창구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미디어상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정 보도 청구나 기사 삭제 요청 등 행정적 대응 수위를 높인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 5·18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민·형사상 책임을 끌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 홍보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공무원과 일반 시민, 청소년, 대학생 등 대상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의 일방향적 홍보를 배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5·18 진실 규명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역사 왜곡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도 강화한다.

광주시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최근 하반기 역사왜곡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청과 교육청,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 5·18연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회의를 갖고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대응시스템도 진화해야 한다"며 "5·18 왜곡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법적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목포 '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순천·해남 이어 세 번째…전남도, 자율주행 사용화 기반 확대 기대

목포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공모에서 '목포 스마트 순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

목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관광·지역산업을 연계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 기반을 위해 목포역을 시작으로 해양대학교, 해상케이블카, 목화체험장, 산정농공단지를 순환하는 총 24km 노선이다.

목포시는 접근성 취약 지역인 산정농공단지, 고

정 수요가 있는 목포역, 관광객이 많은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거점을 하나의 순환형 노선으로 연결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목포 지구 지정으로 순천(2022년), 해남(2023년)에 이어 3개 시군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게 돼 교통 취약지 이동 지원, 관광지 순환노선 구축, 지역 산업거점 연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의회, 광주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 전문가 위촉

강신겸·고재철 위원…정재영 후보자 자질 검증 등 자문

광주시의회 광주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가 전문가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인사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인사특위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재철 대주회계법인 호남본부장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관광공사 업무 분석과 함께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자문, 인사청문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인사특위는 전문가 위촉에 이어 관광공사의 3대 전략과 12개 실행 과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조작·업무 현황을 사전에 점검했다.

전문위원들은 '비어 페스트 광주' 행사 부작용,



정재영 후보자

제2전시관 부지 주차장 서틀버스 운영, 인력 결원 문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직급 통합에 따른 조직 안정성, '2025 광주 방문의 해' 사업 성과, 조선대 RISE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 차기 사장으로 정재영 KBC광주방송 부장을 내정한 바 있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차기 사장을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15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 북구 공식 캐릭터인 '부끄' 대형 조형물과 산타클로스 장식이 설치되어 연말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북구 '부끄' 와 추억 남기세요

15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 북구 공식 캐릭터인 '부끄' 대형 조형물과 산타클로스 장식이 설치되어 연말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광주시, 도시철도1호선 안전·관제시스템 고도화

2027년까지 LTE-R 구축

문에 화재나 테러, 응급 환자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소방서나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즉각적인 공조가 가능해져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대구,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올해 추경에서 22억원을 먼저 확보했고, 내년 예산까지 따내는데 성공했다.

현재 광주교통공사가 관련 장비 구매와 설치를 위한 계약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부터 관제 시스템을 비롯해 선로, 20개 역사, 차량기지, 전동차 23편성 등 모든 구간에 대한 공사가 본격화된다.

기존 방식은 터널 등 일부 구간에서 통신이 불안정하거나 끊길 우려가 있었지만, LTE-R이 도입되면 고화질 영상과 대용량 데이터를 끊김 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호 광주시 광역교통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량으로 도시철도 통신망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최첨단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더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